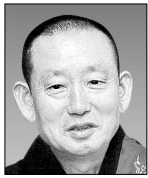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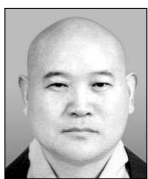
일주문



평창 대흥사 낙성식서 법문
전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은 7월 23일 사부대중 5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평창 대흥사 낙성식 및 불상 봉안식에 참석해 법문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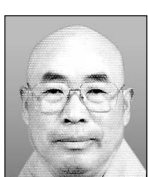
봉선사 연꽃축제
경기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은 광릉수목원과 공동으로 7월 24-25일 봉선사에서 '2004 연꽃축제'를 개최한다. (031)527-1951



군승하게수련회 개최
군불교위원회 위원장 성광 스님은 7월 20-22일 경주 동양유서호텔과 해병1사단에서 군승하게수련대회를 개최한다. (02)749-8646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개최
대구 은적사 주지 허운 스님은 7월 25-27일 은적사 부설 톨마니유치원 법당에서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를 연다. (053)621-1003



'동지청소년의 집' 방문
부천남부경찰서 경승실장 성인 스님은 7월 7일 경기 안산 '동지청소년의 집'을 방문해 의류와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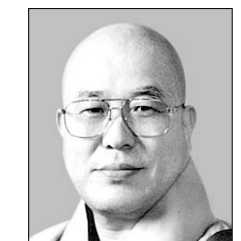
열린우리당 경남도당 대표에
조계종중앙신도회 선진규 명예회장(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은 7월 21일 열린우리당 경남도당 대표에 취임했다.



LA 고려사에서 수심결 특강
전북불교대학 강건기 학장은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미국 LA 고려사 국제불교회관에서 '지불스님의 수심결' 특별강좌를 갖는다.

현성 스님 동국대서 명예철학박사 받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현성 스님은 불교발전과 교육문화 사업 등에 힘쓴 공로로 7월 15일 동국대에서 명예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64년 청담 스님을 은사로 득도, 66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보살계와 비구계를 수지한 현성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 감찰국장 겸 사회부장, 조계종 중앙총회 부의장,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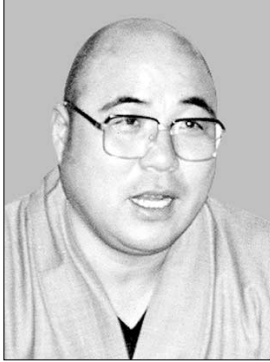
선사와 개운사 주지 등을 역임했고 현재 대한불교 청소년교화연합회장을 맡고 있다. 김은경 기자

“승·재가 노후복지 새 틀 마련”

복지법인 '자제정사' 설립 보각 스님

“승·재가 어르신들의 노후를 편안히 보살피고 드리는 것은 불교 노인복지의 사명입니다. 이번 복지법인 설립도 전문적인 운영과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노인복지 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7월 8일 무의탁 노인복지시설 화성 자제정사를 사회복지법인체로 전환한 자제정사 양로원장 보각 스님(사진)은 전국의 미신고 복지시설 중 처음으로 법인체로 바꾼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복지법인 설립은 원활한 정부 지원을 보장받기 위한 것보다 복지 사업을 능동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니다. 앞으로도 그간 펼쳐온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노하우를 살려 부처님의 자비정신이 현장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각 스님은 이와 함께 자제정사 중장기 발전계획안을 내놓았다. 내년에 인근 부지 3천여 평에 치매노인전문요양원과 남성 노인양로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또 스님 전용 시설도 만들어 출가자가 평생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스님은 이를 위해 후원자 개발과 자원봉사자 모집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올 하반기에



'자제정사 복지타운 조성' 기원 자선음악회를 개최하는 한편, 실행단체 및 지역 기업인 자매결연 맺기 사업, '유산, 복지시설에 물려주기' 운동, 자원봉사 전용 서클버스 운행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031)356-9018 김철우 기자

“장병들 마음에 연꽃 심을 터”

“모래폭풍 속에서도 불교를 전하는 군법사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어요. 자식들을 사지(死地)로 보내는 심정으로 파병장병들의 안병을 위해 불자들이 기도와 기원해 주십시오.”
8월 초 자이툰 부대 일원으로 이라크 현지에 파견되는 강익중 군법사소령·사진. 그는 “이라크 현지의 상황이 매우 불안한 상황이기에 더욱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교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강 법사는 “부처님전에서 지옥중생이라도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고 결의를 피력했다.
군목사 3명, 군신부 1명과 함께 파병되는 강 법사는 “불교를 대표해서 2000여명의 장병들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비록 전장이긴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장병들과 공유하며 생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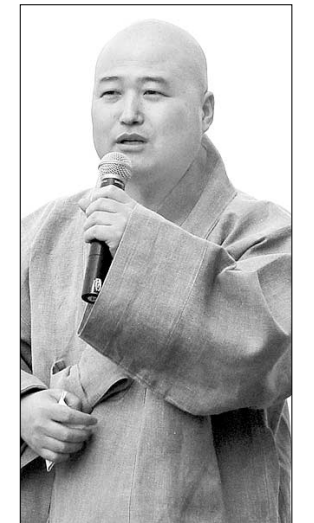
이라크 파병 강익중 군법사



강 법사는 현지에서 장병들과 함께 생활할 때도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법능 스님 명상음악 염불 '관세음보살' 내

노래부르는 법능 스님(사진)이 명상음악앨범 2집 '관세음보살' 음반을 냈다. 명상음악 '나루야미타불'에 이어 두 번째 나온 이번 음반은 전통가락에 현대적 음악을 가미한 것으로 3분 염불 후 1분간 간주가 연주된다.
법능 스님은 명상음악앨범에 대해 “음계의 폭이 넓지 않아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한다”며 “관상염불이나 자성염불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법능 스님은 80년대 노래매 '친구'를 이끈 민중가수로, 93년 출가해 음성공양으로 수행과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스님 음반으로 노래 1집 '오월의 꽃' '먼산'이 있다. www.buleum.pe.kr



이준엽 기자

btn 사장 조재룡 씨 전무이사에 구본일 씨



(주)불교텔레비전은 7월 10일 이사회를 열고, 불교TV 대표이사 사장에 전 영풍기계 조재룡 사장(왼쪽), 전무이사에 전 불교TV 문화원장 구본일 씨를 임명했다.
조 사장은 1961년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 92년 영풍산업 대표이사, 2003년 불교TV 방송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김지연 기자

정동영 통일부장관 법장 스님 예방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7월 13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예방해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법장 스님은 “불교계 대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장관은 “원만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예산 수덕사, 여름 선수련회 개최



예산 수덕사주지 법정은 7월 9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제1차 여름 선수련회'를 개최했다. 조석예불, 선체조, 참선, 108계 등으로 진행된 수련회에서 수덕사주지 법정 스님은 “수련체력이 수련생들 마음 속 수행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041)337-6565

연합포교사 정기연수교육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가 불교(교양)대학 출신 연합포교사 80여명을 대상으로 7월 10-11일 해남 미황사에서 '제2회 정기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연수교육은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의 '불교신앙의 본질' 주제강의 등으로 진행됐다.

대한불교신문, 사진 공모대전 시상식



대한불교신문(사장 조연)은 7월 14일 국제신문 대강당에서 제 12회 불교 및 전문문화사진 공모대전 시상식을 갖고 16일까지 제 1전시실에서 입상 및 입선작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조연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2백여명이 동참했다.

前 중앙승가대학장 송산 스님 입적

인천 보각선원장 송산당 무근 스님이 7월 12일 새벽 48세.
송산 스님은 1942년 서울에서 출생, 56년 사미계, 61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76년 동국대학교 선학과를 졸업한 뒤 일본 경도불교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수료했으며, 중앙승가대 학장 등을 역임하며 후학 양성



에 매진했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겸 총무부장, 중앙총회의원, 선학원 이사 등을 역임했다. 남동우 기자

인사

문화재청 국장 승진 △문화유산국장 김창준 서기관 승진 △혁신인사담당관실 조현중 △문화재정책과 이경훈 △매장문화재과 주정섭 △문화재정책과 김상규 개방형직위 임용 △국립문화재연구소장 학예연구관 김봉건

불기 2548년 신흥사·청소년 수련원 여름수련법회

- 부처님을 우러르는 신심과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과 내 이웃을 감싸안는 봉사로 -

Table with 3 columns: 제53차 어린이 여름 불교학교, 제 46차 청소년 여름 수련법회, 제 27차 성인 여름 수련법회. Each column lists dates, times, and fees.

- 서해안 제부리섬 갯벌탐사와 자연보호 활동
● 성인수련 중 성인수계식을 통해 조계종 신도등록 시 필요한 법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안내: 수원역전 택시 승강장 아래 대학교 버스 서는 곳 못 미쳐서 서신행 좌석버스(400-1번, 490번, 999번) 신흥사 입구에서 하차 (절 보임) 서울, 안산쪽 1호선 금정역 동쪽 앞 330번 타고 신흥사 입구에서 하차(절 보임)

* 수련정보는 신흥사 홈페이지 www.shinheungsa.or.kr 검색엔진에서 '화성 신흥사'를 한글로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전자메일 buruna48@hanmail.net 전화: (031) 357-3916-2695 팩스: (031) 357-8687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산 42-1

화성 신흥사 청소년 수련원 수련·불교대학 체험기

성일 스님 염불 | 값 9,500원 | 신국판 | 392쪽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불교가 이렇게 위대한 종교인 줄 처음 알았고, 부처님이 참으로 거룩하시고 그 가르침이 훌륭한 걸 처음 알았다. 그 위대한 불교를 믿는 불자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갖게 되었다. 또한 바르고 밝게 살아갈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된 것이 자신의 인생에 제일 행복하다...”

어린이불교학교, 청소년·성인 수련대회 참가자, 그리고 불교대학 졸업생들이 남기고 간 소중한 350여 편! 더불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불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불교계에, 스님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아울러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불교학교나 수련대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 책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다보면 절로 행복해지고, 진정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성일 스님은 '내 성불 한 생을 늦추더라도 이 생은 포교하리라'는 원력으로 1973년부터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시작, 해마다 3000여 명의 수련생을 배출하고 수많은 법회와 대중교화에 온 힘을 쏟고 계시다. 신흥사 내에 수련원 건립의 원을 세우고 두문불출 10년 기도를 회향하고 1,000여 명의 청소년 수련원을 건립하였으며, 1년 365일 법회와 수련회를 찾아오는 수많은 불자들의 몸과 마음에 부처님의 향기를 불어넣어주고 계신다.